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한국 속의 한국, 생동하는 전라북도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http://www.jthink.kr

보도시점 : 2016년 5월 12일(목) 12시부터

▪ **문의** : 창조경제산업연구부 이강진 연구위원 (063-280-7141)
▪ **담당실장** :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 (063-280-7161)

초혼 평균 3세 이상 늦어져, 50~60대 재혼 급증

전북연구원 '전북 인포그래픽스'발간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도민의 주요 관심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'전북 인포그래픽스' 를 올 5월부터 발간키로 했다.

○ 전북연구원은 13일 발간된 '전북 인포그래픽스' 1호에서 2000년과 2015년 전라북도 혼인구조와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초혼비중은 감소하고 재혼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초혼연령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○ 지난 15년(2000년~2015년) 사이 전북 혼인형태를 보면 초혼비중은 81.1%에서 74.6%로 감소한 반면 재혼비중은 18.9%에서 25.4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혼인비중은 67.9%에서 36.8%로 감소(-31.1%p)한 반면 30대 혼인 비중은 22.4%에서 45.0%로 증가(+22.6%p)하여 만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평균 초혼은 크게 늦어져(남성 28.8세 → 32.6세, 여성 25.7세 → 29.4세) 전국적 현상과 동일한 추세(전국평균: 남성 29.3세 → 32.6세, 여성 26.5세 → 30.0세)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의 경우 남자연상 비중은

78.6%에서 70.1%로 감소(-8.5%p)하고 동갑 및 여자연상 비중은 증가하였다.

○ 재혼은 50대와 60대의 재혼비율이 크게 증가(남성 +31.5%p, 여성 +17.0%p)하였으며 사별 후 재혼은 감소한 반면 이혼 후 재혼은 증가(남성 +7.7%p, 여성 +7.6%p)하였다.

○ ‘전북 인포그래픽스’는 전북의 경제 및 사회 관심 통계를 분석하여 격월로 발간하며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와 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.